

## 갤러리 엠 보도자료

### 가려진이의재기

김진희 Jinhui Kim

2013년 5월 9일(목) ~ 6월 8일(토)

#### ■ 개 요

작가: 김진희 (Jinhui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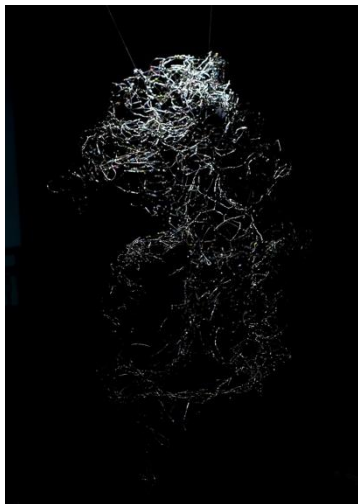
기간: 2013년 5월 9일(목) ~ 6월 8일(토)

장소: 갤러리 엠 (Gallery EM)

시간: 화-금 10:00am~6:30pm, 토요일&공휴일 10:00am~6:00pm

오프닝: 5월 9일(목), 5 pm

#### ■ 전시 취지, 작가 및 작품 소개



*먼지*, 2013, 전자부품, IR  
LED모듈, 120x50x50 cm

갤러리 엠에서는 오는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김진희의 개인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1년의 2인전 이후, 갤러리 엠에서 갖는 작가의 두 번째 전시이다. <가려진이의재기>라는 다소 모호하면서 다중적인 의미의 타이틀을 내세운 이번 전시는 김진희의 '개체성,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그의 눈에 인지되는 화면을 통해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작품들로 풀어내고자 한다.

김진희는 선천적으로 눈 앞의 사물이 색점으로 덮여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그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의 세상을 볼 수 있었다. 작가는

고등학교 시절 햇빛 속에서 먼지를 발견했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을 경험하면서 그 먼지들에 대해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는 훗날 작가의 연작 속에 등장하며, 이번 전시에도 선보이는 '먼지'와 '색점-필터'작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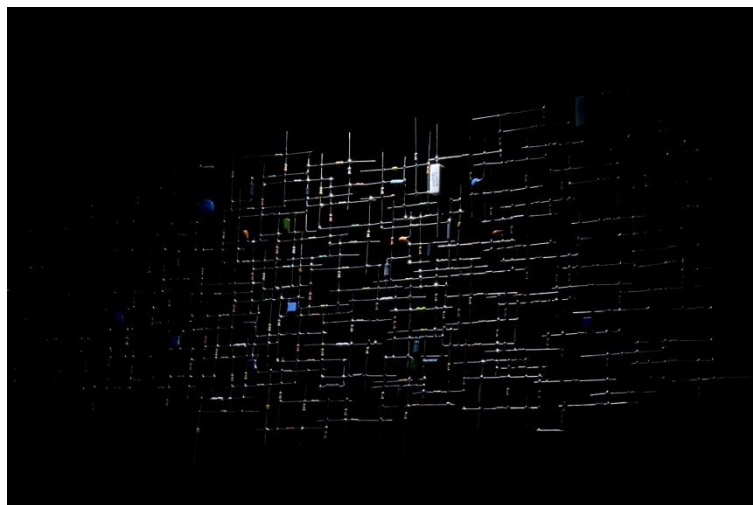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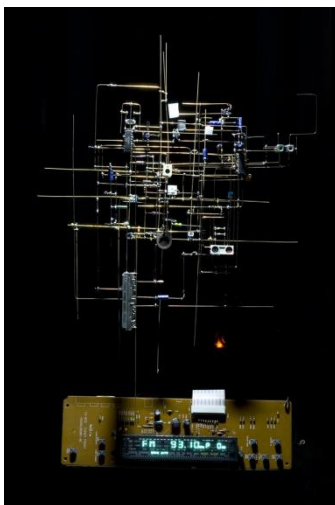
김진희는 작업의 주 소재로 전자기기의 부품을 사용한다. 전자기기를 분해하여, 전자기기 내부의 다양한 부품들을 재조립, 새로운 개체로 탄생시킨다. 작가는 기기라는 큰 틀 속에 가려져 있던 내부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표면으로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듯 기계 속 부품들처럼 개개의 사물은 언제나 존재해왔지만 하나의 단일한 개체라는 존재적 지위를 점점 잃어가고 점차 주변화되며 그 가치가 희석되어 왔는데, 작가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 일반적인 사물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새로 선보이는 작업은, 라디오 부품으로 만들어져 소리만 들리던 기존 작품에 액정 기기판이 첨가된 것이다. 그 기기판에는 라디오 주파수가 나타나는데, 이 숫자들은 공중에 떠다니는 형상으로 표현된다. 이 형상은 청각적, 시각적 요소가 더해져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또한 이번 작업은 부품에 특

수안료를 발라 부품 하나하나가 눈에 띄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안료의 사용으로 부품들은 작품 안에서 독립성을 가지며 동시에 생명체처럼 표현되는데, 이는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작가는 숫자가 드러나는 기기판과 기기의 부품을 사용해 디지털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정교한 형태를 만들어 내고, 동시에 라디오라는 매체를 가미해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표현한다. 작품의 형태 역시 상징적 이미지와 추상적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주는데, 이런 독립적인 특성들이 만나 하나의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된다. 김진희의 작업은 다시 말해 전자기기의 부품들을 분해해, 개별 부품을 전체 시스템에서 갖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에 대한 가능성의 인자로 보고 새롭게 재배치해 다시 정의하는 것과 같다. 작가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재창조를 통해 평소에 보이지 않던 사물 내면에 위치한 입자들의 응축된 힘과 그 사이의 공간성을 표현한다. 즉, 이번 전시 제목인 <가려진이의재기>는 ‘가려진 이(伊)의 재기’ 혹은 ‘가려진 이의(異義) 재기’ 어느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차원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독특한 방식과 새로운 소재를 통해 꺼내어 보여준 김진희의 작품을 통해 가려져 있던 것들에 대한 의미를 되살펴보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한다.

김진희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환경조각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소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 한전아트센터에서 <두 개의 틈>전, 2010년 송은 아트스페이스에서 <엑서스 포인트>전, 2009년 아뜰리에 705에서 <먼지>전 등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그 외에도 2012년 인사미술공간에서 열린 <책상 위의 한 선정은, 결국>전, 2011년 대안공간 루프에서 <에프터 휴머니즘>전과 갤러리 엠에서 <웰컴 투 마이월드>전, 2010년 금천예술공장에서 <테크네의 귀환>전, 2009년 모란 미술관에서 열린 <반응하는 조각>전, 관훈 갤러리의 <원 포인트 식스>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Left) 먼지, 2013, 튜너, 앰프, 인칭동선, 75 x 55 x 10 cm

(Right) 색점-필터, 2013, 전자부품, 스테인레스 스틸, 50 x 100 x 7 (detail)